

제2357호 2019. 5. 19. 부활 제5주일

내가 원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곧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화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형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삶의 방식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에 대한 기준 역시 변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랑이 변화하고 사랑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랑을 수용하는 우리의 이해와 이해방식, 의미화의 과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의미화의 과정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할 뿐입니다.

우리 인류는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사랑하고픈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방식으로 하는 사랑,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내 기준대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자 하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진정한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우리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완전히 내놓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모습을 자세히 보면, 상대방이 자기다움을 지니며 살도록 배려하는 것이 참 사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주위에 있는 ‘너’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더불어 살면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 간에,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완전히 나와 같아지기를, 나에게 맞춰주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나’가 아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임성섭 유스티노 신부 | 옥포본당 보좌

주일 진례

- 입 당 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 본 기 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 제 1 독 서** 사도 14,21ㄴ-27
- 화 답 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제 2 독 서** 묵시 21,1-5ㄴ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복 음** 요한 13,31-33,34-35
-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Your faith was strong but you needed proof...
Remember when I moved in you, And the holy dove was moving too
And every breath we drew was Hallelujah*

- 레너드 코언

다윗은 자신이 욕망으로, 삼손은 자신의 실수로, 각각 하느님 뜻에 반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느님 뜻에 맞춰 살았다고 믿었던 읊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구원경륜은, 하느님의 구원계획과 역사를 의미합니다. 현실의 역사는 사람이 만든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섭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로 끌어안으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의지입니다. 사람들의 죄와 몰이해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십자가로 수렴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뜻을 올리고 길을 만들어가는 이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읊은 충분히 선한 이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느님 사람의 길은,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며,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도 내주는 데(루카 6,2-29), 하느님의 모든 업적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신비롭고(읊 37,16), 결국 그분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심을(시편 104,28) 믿는 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 창세 19-20

* 믿음이 강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당신 안에 깃들일 때 성령의 비둘기도 함께였습니다. 모든 숨결이 알렐루야입니다.

2019 엠마오 여행 (루카 24,13-35)

▶ 교구 홈페이지 참조

1 말씀풀이 5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동체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으며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요한 20,19-23)

1.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곳은? (초성: 모리)
2.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동체'에 처음 나타나셔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 20,19-23; 초성: 오사)
3.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첫번째 계약을 맺은 곳은? (탈출기 24장: ○○○ 산)
4.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루카 24,50-53)

2 순례와 미사 마산교구 순교복자 성지 또는 하느님의 종 묘소

3 증언하기 부활인사 또는 부활체험 나누기

응모내용 : 말씀풀이 5개, 순례지 사진 1장, 부활인사 또는 부활체험 나눔

응모기간 : 부활 제5주일 ~ 주님 승천 대축일

보내실곳 : 미디어국 media2@cathms.or.kr 또는 전화 010.8482.2031

"전화는 문자, 사진, 파일만 받습니다. 문의는 미디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선물발표 : 성령 강림 대축일

● 심정현(요한드라살) 부제 서품식



| 로마에 유학 중인 함안본당 심정현(요한드라살) 신학생이 5월 4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페르난도 필로니(Card. Fernando Filoni) 추기경 주례로 부제 서품을 받았다. 유럽에서 사목 중인 신부들과 공부 중인 신부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 ‘토영은 따시데이’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 임효진 야고보 신부)을 비롯한 통영의 여러 기관이 주관하여 ‘토영은 따시데이’ 축제를 열었다. ‘따시데이’ 축제는 저소득층에게 난방유 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하루 기념하는 축제에서 올해는 5월 내내 여러가지 축제를 마련하였다. 가족의 날(5월 18일), 어르신 날(5월 21일), 부부의 날(5월 21일),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5월 26일), 두근두근 가족영화 데이트(5월 29일)가 있을 예정이다.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이 행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평거동성당 첫미사



| 평거동성당(주임 : 주용민 리노 신부)은 5월 5일 신안동성당에서 분가하여 첫미사를 드렸다. 평거동성당은 2019년 1월 1일 신안본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옛 젊은예수의집을 터전으로 삼았지만, 신자들이 모여 미사를 드릴 자리가 여의치 않았다. 이제 옛 건물을 두달간 리모델링하여 성전을 마련하였다. 5월 5일 미사에는 260명의 신자들이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었다.

● 하늘의 문 브레시디움 창단주최



| 완월동성당(주임 : 이주형 예로니모 신부)에서 남성 브레시디움, ‘하늘의 문 브레시디움’ (단장 : 이기석 다니엘)이 창단되었다. 하늘의 문 브레시디움은 세례 받은지 2개월부터 50년까지 된 중년남성 8명으로 구성되어, 5월 2일 첫 주회를 가졌다. 완월동성당에서 오랜만에 창단된 남성 브레시디움이라 본당의 활기를 주고 있다.

사랑이 갑이다

김용태 신부 대전교구

‘갑질’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등장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인터넷 신조어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용어가 되어 버렸다.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 땅에 ‘갑질’이 만연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사실 ‘갑질’이 어디 어제오늘의 일이겠는가! ‘나보다 힘이 없는 이에게 가하는 폭력’은 인류의 역사 안에 불평등과 차별이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늘 존재했다.

그런데 ‘갑질’이란, 말 그대로,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다. 다시 말해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힘있는 이가 힘없는 이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그러다 보니 ‘갑질’이란 것은 ‘내리폭력’의 특성을 지닌다. 위에서 아래로 거기서 다시 더 아래로 가해지는 폭력인 것이다. 험센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한 이가 자기보다 약한 누군가에게 ‘갑질’을 가할 수 있다.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이다. 우리 모두는 ‘갑질’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 시대의 폭력은 위에서 아래로 더 힘없고 더 가난한 이들을 향해 가해진다. 그야말로 권력을 지닌 고관대작들만이 아니라 대감집 머슴이 동네 거지에게도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갑질’인 것이다.

한편, ‘갑질’에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하기도 한다. 내가 당한 ‘갑질’을 나보다 더 약한 이들에게 가하는 또 다른 ‘갑질’로 보상받는 것이다. “이젠 내 차례야!”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원청업체에게 당한 일을 재하청으로 메우려 하거나, ‘쫄병’ 때 당한 그 짓을 ‘고참’이 돼서 똑같이 저지르고, 머느리 때 당한 시집살이를 시어머니가 돼서 똑같이 시킨다. 학생운동에 열심이던 사람이 나중에 고위 공직자가 되어 전에 자신이 욕하던 그 모습과 똑같아지는 것은 ‘변절’이라기보다는 ‘갑질’이라는 욕망에 충실한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나보다 더 작은이’에게 가해지는 ‘내리폭력’과 ‘보상심리’로서의 ‘갑질’은 폭력의 고리가 되어 악순환하고 대물림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몇몇 고위층 인사들의 ‘갑질’에 분노하지만, 사실 ‘갑질’이란 것은 오랜 세월 인간의 욕망 안에 깊이 뿌리내려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과 차별, 거기에서 나오는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모든 폭력의 원인이 되는 우리 안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원하기 때문이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기를 원한다. 마땅히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가? 가만 보면 그건 또 아니다. 사람들은 차별받는 것은 싫어하지만 차별적으로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은 좋아한다. ‘갑질’ 당하는 것은 싫지만 ‘갑’으로 대우받는 것은 좋아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힘없는 ‘을’을 찾는 일에 더 열중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 세상의 온갖 불평등과 차별을 용인하고 거기서 오는 폭력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이율배반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에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오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한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대부분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 하나 그 어떤 차별과 불평등도 그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유일한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다. 사랑을 하면 서로 같아지길 원한다. 높이 있는 것은 내려와 같아지려 하고, 많이 가진 것은 나누어 같아지려 하고, 앞서 있는 것은 기다려 같아지려는 모습을 지닌다. 사랑에는 ‘갑질’이 있을 수 없다. 산과 언덕이 깎여서 골짜기를 메워 평지가 되고 평야가 되게 하는 그 힘은 사랑이다(이사 40,4 참조). 따라서 차별과 불평등에서 비롯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의 구조로 탈바꿈해나가야 한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과 같아지게 하시려고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6-7)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당신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4-15)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태 20,25-26,28)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닮은 사랑으로 초대하시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관계를 갑과 을이 아닌 가족의 관계(마태 12,50 참조)로, 주인과 종이 아닌 친구의 관계(요한 15,15 참조)로 이끄신다. 우리는 주님의 이 초대에 성실히 응답하여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주는 좁아터진 사랑에서 벗어나 세상 모든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드넓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루카 6,27-36 참조).

정녕 사랑하면 알리라. 높은 데서 홀로 굽어보는 그 짜릿함보다 낮은 곳에서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그 담박함이 더 낫다는 것을! 혼자서 누리는 특별함보다 다 함께 나누는 평범함이 더 낫다는 사실을! 사랑이 ‘갑’이다.



교구장 동정

일 시 : 5. 26.(주일) 14:00
장 소 : 안동체육관
내 용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미사

향심기도의 열매와 은사 (2박 3일)

일 시 : 5. 27.(월) 15:00~29.(수) 15: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향심기도 피정 경험이 있으신 분
참배 : 16만 원
문 의 : 055.221.1891

교구·본당

■ **사제피정 2차**

일 시 : 5. 20.(월)~25.(금) 4박5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 2차**

일 시 : 5. 26.(주일) 14:00~16:00
장 소 : 신안동성당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1~3

■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 시 : 5. 26.(주일) 10:30
장 소 : 하동성당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29

■ **교구 성경특강**

주 제 : “여러분을 다스릴 분은 주님이십니다.”
강 사 : 김영선 루시아 수녀
일시/장소 : 6. 3.(월)/ 칠암성당(거제, 진주지구)
6. 4.(화)/ 명서동성당(창원마산지구)
시 간 : 10:00~13:00(성경, 필기도구)
강의료 : 5,000원(당일판매 가능)

위원회·기관·단체

■ **체나콜로(다락방) 5월 월기도 모임**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묵주 100단 기도

일 시 : 5. 20.(월) 09:00~16:00
장 소 : 사파동성당(미사집전)
문 의 : 회장 010.9399.5454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5월 기도모임**

일 시 : 5. 20.(월) 11:00~ (미사 14:00)
특 강 : 13:00 성체조배회관련(이청준 신부)
대 상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전신자
장 소 : 장승포성당
문 의 : 010.3903.8234

■ **전례꽃이회 월모임**

일 시 : 5. 21.(화) 13:30
장 소 : 교구청 지하성당
문 의 : 담당자 010.9841.8191

■ **연도 초급과정 1차 교육**

일 시 : 5. 25.(토) 13: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담당자 010.3596.0135

■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미사안내**

베트남 공동체 미사(베트남어)
일 시 : 매월 넷째 주 (토) 19:30
장 소 : 대건성당 교육관 2층
주 례 : 부반단(마르티노)신부
문 의 : 대건성당 055.644.3323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 시 : 매월 첫주 (월) 10:00~14:00
장 소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 의 : 055.237.6487

■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 용 :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 간 : 3월부터 12월
장 소 :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 의 : 055.247.5195~7

수도회

■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

일 시 : 6. 22.(토) 11:00~ 23.(주일) 16:00
장 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 상 :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내 용 :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회비 : 5 만원
문 의 : 010.5490.5345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젊은이 선교체험(대만)**

일 시 : 8. 1.(목)~6.(화) 5박6일
대 상 : 만19세~만35세, 청년 남녀 15명
경 비 : 100만 원(항공료포함)/ 마감 : 6월 중순
신 청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53.0613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5. 29.~31./ 6. 10.~12./ 6. 14.~16./
6. 19.~22./ 6. 25.~28./ 7. 5.~7.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 **나자렛 예수 수녀회 일일 피정**

일 시 : 상시/ 대 상 : 개인 또는 단체 20명
장 소 : 나자렛 예수 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 의 : 010.9597.8981(양 에스텔 수녀)

기 타

■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제교육)**

주 최 :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 만원
주 소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 5234호 우 : 04535
문 의 : 02.2274.1843~4/ 홈페이지 : cdcc.co.kr

■ **부산교구 수요치유기도회**

일 시 : 5. 22.(토) 12:50~16:00
장 소 : 영성의 집
강 사 : 김정희 에프램 수녀
문 의 : 영성의 집 055.382.9465

 라파엘여행사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오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9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 4일 (13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VIP 공항투어 워딩 가족관광 대표 김중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성악 스튜디오 T.070. 4384. 8730 blog.naver.com/franz32 조 현 울 프란체스코 마산회원구 양덕1동 주민센터 맞은편 2층  초음파 배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ength.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	---	--	--



명례성지 한국천주교회사 강좌

한국천주교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을 위한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일 정 : 6. 15.(토) 16:00 개강미사 (1년과정)
평일반 : 매월 3주(화) 11:00 미사 후
주일반 : 매월 3주(토) 16:00 미사 후
장 소 : 명례성지/ 회 비 : 10만 원
강 사 : 신은근 신부, 최문성 신부,
조미형 수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인 원 : 각 반 선착순 50명
신청 및 문의 : 조미형 수녀 010.5877.3217



29차 청년성령세미나(2박3일)

일 시 : 6. 28.(금)14:00~6. 30.(주일)16: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청년
참가비 : 9만 원
입금계좌 : 경남 593-22-0355398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 청 : 6. 19.(수)까지 (참가비 입금순 40명)
문 의 : 청년성령쇄신봉사회 myhs.or.kr
010.8864.7067, 010.9113.7062
※ 파견미사 6.30.(주일) 14:00



약혼자 주말 (2박3일)

일 시 : 6. 21.(금) 19:00~23.(주일) 16:00
장 소 : 성혈흡송수녀원
대 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2년 미만의 신혼부부
교육비 : 1인당 12만 원(부부당 24만 원)
입금계좌 : 농협 301-0003-8497-31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청기한 : 6. 14.(금)까지 (선착순)
접 수 : 본당사무실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2019 대구성령축제

일 시 : 5. 25.(토) 09:00~18:00
장 소 : 성 김대건기념관(대구 남산동)
강 사 : 안토니 데카나스 신부 (통역 배형진 신부)
표준관 신부, 이성진 신부
주 레 : 교구장 조환길(타대오)대주교
문 의 : 대구성령봉사회 010.9045.0191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비 용 : 64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문 의 : 송진욱 신부 010.3005.9028

부산교구 <혼인강좌> 교수 초빙

분 야 : 심리학 및 유관 학문
서 류 : 이력서, 교적, 박사학위증 사본
제 출 : 7월 말까지 / 우편접수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8-7 가정사목국
문 의 : 부산교구가정사목국 051.441.3500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 생명나눔·생명존중 작품공모전

기 간 : 5. 1.(수)~ 9. 30.(월)
분 야 : 포스터, 슬로건, 글짓기, 동영상, 웹툰
접수방법 : obos.or.kr 참조/ 웹하드 및 우편
주 관 : 한국평협,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매주 (수)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
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
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7:00
문 의 : 담당자 010.9992.3443

✦ 이재영 신부 부친 선종

이재영 바실리오 신부(망경동본당 주임)
부친 이종진(요셉)님께서 5월 2일(목)에
선종하여 5월 4일(토) 고성성당에서 장
례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조문하여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레	문 의
교 구	5. 20.(월) 19:00	월남동성당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고영민 신부(안드레아, 삼성산)	안찬모 신부(이냐시오,삼위일체)	010-5072-5612
창원지구	5. 13.(월) 19:00	반 송 성 당	제4강 :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김완식(요셉, 선교사)	허철수 신부(미카엘)	010-9664-1813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그리스도의 성혈흡송 수녀회	5. 19.(주일) 14:00~16:00	옥계 본원	010.4872.9430	srasc@hanmail.net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전문학원 앞 명례성지 조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베트남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부산 or 대구 출발 직항편 매일확보 / 전문 가이드 배치 1. 북부 순교성지 + 하노이/하롱베이 3박5일 (110만원~) 2. 중부 성모발현지 + 다낭/호이안 3박5일 (110만원~) 3. 북부 + 중부 성지 핵심일정 포함 4박6일 (130만원~) <본당 및 신심단체 환영, 소규모 그룹 여행(상시 모집), 별도일정 협의가능> 투어찬스 대표 이승준 요한 보스코 (마산 성계) 010-2992-4785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품격 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5월 24일</td> <td>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td> <td>13일 415 만원</td> </tr> <tr> <td>8월 20일</td> <td>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td> <td>11일 350 만원</td> </tr> <tr> <td>8월 20일</td> <td>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td> <td>12일 429 만원</td> </tr> </table>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본도여행사 02.852.8525	5월 24일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	13일 415 만원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5월 24일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	13일 415 만원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철드는 밥술”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교구청 미사는 깔끔하고 간소하면서도 수녀님들이 올리는 기도 소리가 낭랑하니 참 좋습니다. 또한 잡소를 없이 집중되어 분심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교구청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본당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신자들 기도 소리와 성가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침 지난 어린이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구암동성당’에서 미사 봉헌을 하였습니다. 신자들의 차분한 기도 소리와 본당 신부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가 참 편안하면서도 좋았습니다. 미사 후에 본당 신부님과 몇몇 신자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밥이 차려졌습니다. 작은 술 채로 밥을 내어 왔습니다. ‘돌술밥’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 ‘쇠술’, ‘철술밥’이었습니다. 속으로 기분 좋은 생각이 들어서, “구암동성당 신부님이나 신자분들이 차분하니 무게감 있게 미사 봉헌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건네니 신자들이 의아해 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술을 보니 ‘철술’ 아닙니까. 구암동에서는 이 ‘철술’로 밥을 자주 드시다 보니 철이 듬뿍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직한가 봅니다. 하하” 저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5월을 지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5월, 어버이날,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바다의 날... 가정에 관련된 각종 기념일을 지나지만, 신부는 끼일 만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모두 주님께 모시고 나니 더욱 허전합니다. 아직 철이 덜 떨어져 그런가 싶습니다.(바다의 날은 왜 썼냐고요? 제 이름이 南海라서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원한 기다림

이준호 라파엘 • 시인

아내는 무교였다. 정통 보수에 무신론자였던 친정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이었다. 관면혼배로 결혼은 하였으나 그녀의 영세는 요원해 보였다. 그러던 아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죽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대세를 받는 시기도 잡기 어려웠다. 주변에는 성당도 보이지 않았다. 애써 찾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나의 부덕과 불찰이었다. 생명이 다되어갈 때 아내는 바깥 햇빛을 보고자 했다. 병상에서 시들어 가는 풀꽃처럼 누워있기를 거부했다. 휠체어를 끌고 나왔을 때 그 순간이 마지막일 줄은 몰랐다. 다급하게 병원을 찾았고 기적같이 가톨릭병원이 눈앞에 있었다. 수십 년 전 한국에 온 벽안의 원장 수녀님은 아내에게 대세를 주었다. 임종과 대세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아내의 세례명은 마리아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성모님을 믿게 되었다. 사지에서 대세를 외쳤을 때 도와주신 분을 나는 직감으로 알아차렸다.

지난 겨울에는 주변의 많은 이들이 베트남을 다녀왔다. 나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다낭의 가까운 곳에 성모발현 성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프랑스의 파티마나 루르드는 너무 멀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

다. 유명한 성모발현 성지인 ‘짜깨우’와 ‘라방’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러나 가는 길도 몰랐고 성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구글 지도는 밤하늘의 북극성이 되어 길을 안내했다. 베트남의 택시기사는 비 내리는 성지로 나를 데려다 주었고, 또 기다려주었다. 성지에 가는 길은 멀었지만 기다림을 온전히 체득했다.

옛날 할머니들이 정안수 앞에서 계속 조아리며 빌고 또 빌듯이 나도 성모상 앞에서 그랬다. 옆의 딸들에게도 고개를 숙이게 하고는 함께 기도했다.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이 성모상 앞에 있었다. 향을 사르고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쳤다. 반얀 트리 아래 베트남 옷을 입고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신 성모님을 알현하였다. 150년 전에 고통받는 인간 앞에 나타나신 것만을 그동안 생각했었다. 그러나 성모 발현은 현재 진행이며 영원하고 찰나같은 기다림임을 묵상하였다. 주변이 정돈되지 않은 성지를 보며 신자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도 기원하였다. 성지를 떠나올 때 기도의 한 구절만이 남았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